

**I. 이달의 소식**

- | | |
|-----------------|-----|
| 1. 정기모임 안내 | 1쪽 |
| 2. 창조과학기본과정(안내) | 2쪽 |
| 3. 지부소식 | 25쪽 |

II. 특집

- | | |
|---------------------|----|
| 1. 유신론적진화론(3)점진적창조론 | 6쪽 |
|---------------------|----|

III. 내용

- | | |
|------------------------------|-----|
| 1. 정재훈칼럼(22)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 8쪽 |
| 2. 성경여행(91)요시야가 성전을 재건하다 | 13쪽 |
| 3. 창조기사(47)내겐 성경이 있어 -이종현역 | 16쪽 |
| 4. 창조과학 스터디 모임(5)(6) | 21쪽 |

인사말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14:16) 하시고 가르치시겠다 (14:26) 고 말씀 하십니다. 16장에서는 우리를 진리가운데로 인도 (16:13) 하시며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 (2:10)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과학 사역을 하면서도 늘 두려운 것은 혹 제가 부족하여 과학을 빌어 하나님의 이 귀하신 말씀을 잘못 전달하지는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매일 아침 QT시간에 창조과학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진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청중들에게 전달하게 해달라고... 제가 부족하여 사실을 잘못전달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는 창조과학 사역을 위해 열심히 또한 공부하고 노력하면서도 또한 늘 부족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 글: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학술담당)부지부장 전창진 -

1. 대구지부 정기모임 안내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2017년 3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지부사무실에서 정기모임을 갖습니다. 이번에는 1교시, 2교시 “한국인의 기원” 강연이 있습니다. 교제와 나눔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시 30분부터 간식)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사무실/전시관

주소: 대구시 남구 현충로 64(4층)

문의: ☎ 070-4095-6420, 010-2051-0922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2017년도 창조과학 기본과정

-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복음전도의 강력한 도구로 창조과학을 사용하기 원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

- **모집대상:** 창조과학에 관심 있는 분
(자격제한 없음)
- **주요 프로그램:**
 - 창조와 진화
 - 노아의 홍수와 방주
 - 창조과학 주요 강연 수강
 - 최신 창조과학 핫이슈 토의 등
- **교육기간:** 2017. 02. 13 ~ 03. 13 (5주 과정)
(5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9시 반)
- **등록비:** 7만원
- **장소:** 온누리교회(경주)
(경주시 원화로 484 성보빌딩 4층)
- **참가신청/문의:** 010-2051-0922
(지명구 간사, 카톡아이디 jimg)
- **특기사항:**
 - 심화과정 수강자격 부여
 -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명의 수료증 수여
(4주 이상 참석 및 필독서 감상문과 간증문 제출 하신 분)
- **주최:**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식당법인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Daegu Affiliate,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eation Research

창조과학 기본과정

- 일시: 2017. 02. 13 ~ 03. 13 (5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9시 반
- 장소: 온누리교회(경주)

Program

	1주 (2월 13일)	2주 (2월 20일)	3주 (2월 27일)	4주 (3월 6일)	5주 (3월 13일)
18:40-19:00	등록 접수	다과(Tea Time)	다과(Tea Time)	다과(Tea Time)	다과(Tea Time)
19:00-20:00	오리엔테이션 (기본과정 소개) <단체사진촬영> 강의1: 인류의 기원 (강사: 김영호 박사)	강의3: 진화론의 영향 (강사: 이종현 교수 (대구지부 지부장))	강의5: 노아의 홍수와 방주 (강사: 박혜정 박사)	강의7: 우주와 지구창 조의 신비 (강사: 권진혁 교수)	강의9: 진화론의 아이콘 (강사: 전창진 교수)
20:00-21:00	강의2: 생명의 신비 (강사: 신동수 교수)	강의4: 빙하기와 격변 (강사: 강기태 강사)	강의6: 지층과 화석 (강사: 갈은주 강사)	강의8: 성경의 과학적 무오성 (강사: 김경태 교수)	강의10: 교과서 속 진화 론 바로알기 (강사: 김종배 교수) 수료식
21:00-21:30	창조과학 토의 및 친교	창조과학 토의 및 친교	창조과학 토의 및 친교	창조과학 토의 및 친교	창조과학 토의 및 친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2017년도 포항지역 창조과학 기본과정

- 대상: 창조과학에 관심 있는 분 (자격제한 없음)
- 주요 프로그램:
 - 창조와 진화
 - 노아의 홍수와 방주
 - 창조과학 주요 강연 수강
 - 최신 창조과학 핫이슈 토의 등
- 교육기간: 2017. 03. 06 ~ 04. 3 (5주 과정)
(5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9시 반)
- 등록비: 7만원
- 장소: 빛과소금교회(포항)
(포항시 남구 대이로 25번길)
- 참가신청/문의: 010-2051-0922
(지명구 간사, 카톡아이디 jimg)
- 특기사항:
 - 심화과정 수강자격 부여
 -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명의 수료증 수여
(4주 이상 참석 및 필독서 감상문과 간증문 제출 하신 분)
- 주최: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심단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Daegu Affiliate,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eation Research

창조과학 기본과정 (포항)

- 일시: 2017. 03. 06 ~ 04. 03 (5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9시 반
- 장소: 빛과소금교회(포항)

Program

	1주 (3월 06일)	2주 (3월 13일)	3주 (3월 20일)	4주 (3월 27일)	5주 (4월 03일)
18:40-19:00	등록 접수	다과(Tea Time)	다과(Tea Time)	다과(Tea Time)	다과(Tea Time)
19:00-20:00	강의1: 생명의 기원 (강사: 현창기 교수) 오리엔테이션 (기본과정 소개) <단체사진촬영>	강의3: 성경의 과학적 무오성 (강사: 김경태 교수)	강의5: 자연의 신비 (강사: 신동수 교수)	강의7: 진화론의 아이 콘 (강사: 전창진 교수)	강의9: 진화론의 영향 (강사: 이종현 교수 (대구지부장))
20:00-21:00	강의2: 노아의 홍수와 방주 (강사: 서병선 교수)	강의4: 성경 속 공룡 (강사: 김경태 교수)	강의6: 우주와 지구창 조의 신비 (강사: 권진혁 교수)	강의8: 교과서 속 진화 론 바로알기 (강사: 김종배 교수)	강의10: 빙하기와 격변 (강사: 강기태 강사) 수료식
21:00-21:30	창조과학 토의 및 친교	창조과학 토의 및 친교	창조과학 토의 및 친교	창조과학 토의 및 친교	창조과학 토의 및 친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점진적 창조론

하나님께서 수십억년 동안 창조와 멸종을 반복하셨다는 주장

이재만선교사 글



점진적 창조론이란 한마디로 하자면, 수십억 년의 지질시대 동안 하나님께서 진화의 순서로 창조와 멸종을 반복하셨다는 타협이론이었다. 점진적 창조론과 보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였던 유신론적 진화론과 차이점을 말하자면 유신론적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아메바와 같은 단순한 생물을 창조하신 후에 수십억 년 동안 ‘진화하도록 내어두셨다’고 하는 반면에, 점진적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수십억 년 동안 ‘진화의 순서로 창조하셨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 역시 단지 창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 역사를 보여주는 지질시대를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멸종도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실제로 점진적 창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인다.

점진적 창조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이 이론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1980년에 시카고 자연사박물관에서 ‘대진화’라는 제목으로 당대 최고의 진화론 과학자들을 포함해서 160명이 모인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 결과는 한 기자에 의해 사이언스지에 실렸다. 제목은 “해고될 위험에 있는 진화론”(Evolutionary theory under fire)이었다. 이 모임에서 진화론자들이 진화론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1. 소진화가 축적되어 대진화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의 부재
2. 화석에서 전이 형태의 부재


첫 번째 그들의 결론은 종류가 변하는 대진화가 설명될 수 없다는 말이다. 생물학적 증거가 없다는 의미다. 다른 하나는 화석에 관한 내용이다. 화석에서 진화되는 과정인 중간 단계의 전이 형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진화론에 대한 지질학적 접근의 실패를 의미한다. 사실상 진화론의 핵심인 이 두 가지의 과정을 설명할 수 없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점진적 창조론은 이와 같이 진화론자들의 자세가 변하는 시대적 배경에서 등장했다. 즉 진화론자들이 대진화에 대한 회의적 결론과 전이 화석의 부재를 선언하던 시점이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진화론자들이 버리지 않는 빅뱅, 지구의 나이, 진화의 순서 등은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이것의 등장으로 창조과학계 안에서는 적잖은 당황스러움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분명히 진화론자들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묘한 입장을 고수했는데 진화를 반대하면서 성경도 반대했다. 이때만 해도 창조과학의 주된 타겟은 세상에 널리 퍼진 진화론이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진화론과 성경을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런 사람들도 결국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이론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세상을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런데 1980년대 말, 교회 안에 이 독특한 이론이 등장한 것이다.

불행하게도 많은 미국 교회는 이 이론을 환영하였고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했다. 지금도 많은 미국 교회에서는 이 이론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다음세대를 교회에서 떠나게 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이 틀려도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단지 미국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다음 회까지 연장해서 비교적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다음 회에서는 점진적 창조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과학적 성경적 문제점을 다룰 것이다. [참조](#)

22.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종교가 되어버린 진화라는 상상		
22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강사 정재훈		

책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지만(나도 지금 책을 쓰고 있으니 말이다.) 고대인들에게 책은 그렇게 쉽게 접하거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307]

미국 UCLA의 근동언어문화학과 교수인 ‘윌리엄 슈니더윈드(William M. Schniedewind) [308]’는 그의 책 『성경은 어떻게 책이 되었을까』에서 성경 같은 고전들은 ‘누가 썼는가?’ 보다는 ‘언제 쓰였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309]

글의 저자라는 개념은 과거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 개념은 글이 보편화된 비교적 현대에 생겨난 것이다. 책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술문화였고, [310] 구술문화 사회에서 책의 권위는 이야기의 ‘저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사용한 공동체에 있었다. [311] 이야기를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서 사용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구술문화 시대에는 1% 정도의 사람들만이 글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312] 오늘날과 같은 양면에 글을 써넣은 종이들을 한데 묶어 만든 ‘코텍스’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1세기경에 처음 출현했고 4세기경에 보편화되었다. [313] 성경도 파피루스라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나중에 코텍스로 옮긴 형태이다. [314]



〈두루마리 성경〉

그런데 당시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글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글로 기록했을까? 그것은 글이 가진 권위 때문이었다. [315]

4세기 이후, 소수의 엘리트들만이 사용하던 글을 일반인들도 사용하게 되면서 말, 구두전승과 글 중 어느 것이 더 권위가 있는가를 두고 공개적으로 대립하게 된다. [316] ‘소크라테스’는 ‘파이드로스’에게 ‘글은 질문을 하면 똑같은 말만 영원히 반복할 뿐’이라며 글의 권위를 비웃었다. [317] 당시 소크라테스는 권위를 말, 구두전승에 두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구두전승의 권위를 지키려고 노력했으나 시대적 흐름을 막지는 못했다. 권위는 서서히 구두전승에서 글로 옮겨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글은 원래의 자료인 구두전승을 철저히 의존해야만 했다. [318]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던 구두전승이 ‘그대로’ 기록되어야 했다는 말이다. 이것은 판소리가 기록된 과정과 비슷한데, 소리꾼들에 의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오던 판소리가 기록되는 과정에서 기록자에 의해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약, 기록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이라도 가감되었다면 권위는 바로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래서 전래 동요나 판소리에는 오늘날에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나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다. 그들이 옛날 용어를 현대어로 바꾸려고 시도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구전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려 애쓰고 있다.

개인적으로 전통악기인 산조대금을 배웠는데, 곡의 미세한 표현(시김새) 하나까지 전수받은 그대로 붙여야한다. 그래서 같은 ‘류’를 전수받은 사람들끼리는 곡의 세밀한 부분까지 완전히 똑같다.

이처럼 모세에 의해 기록된 후, 글로나 구두전승 되던 성경이 다시 책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가감되었다면, 기록된 성경의 권위는 바로 없어졌을 것이다. 고로 성경이 전승된 내용을 가감하여 기록했을 리는 없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운율에 맞추어서 기록되어 있고, 일부 장의 머리글자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고대 문헌들의 한 특징으로, 외워서 구전되기 쉽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본다. 기록된 성경이 가진 이런 특징으로 보아 구두 전승되던 것을 그대로 기록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성경의 전승에 관한 다양한 설이 있지만, 여러 책의 모음 책인 성경(구약성경)은 기원전 8세기 후반 남쪽 이스라엘이었던 유대의 왕 ‘히스기야’ 시기에 수집되어 두루마리 형태로 모양새가 갖추어지기 시작했을 것으로 본다.

히스기야왕 시대에는 강력한 사회적·정치적 힘이 결집되면서 구두전승 되었던 성경의 수집과 새로운 글의 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319] 당시 글은 도시 관료제도의 일부분이었으며 왕실의 힘을 확장하는 정치적 도구가 되었다. 더군다나 그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의 사회 분위기와 필요들이 성경의 수집과 기록을 촉진시켰을 것이다.

성경이 책의 형태로 되는 과정과 오늘날과 같은 66권의 형태로 된 긴 이야기는 이 글에서 다루기는 방대하여 여기서 접기로 한다. 조금만 관심을 두고 찾아보면 이 부분에 관련된 많은 책이 있고,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세계사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니다. 성경은 일반 세계사와도 일치한다. 성경에는 당대 유라시아의 최강 문명과 제국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당시 유라시아의 패권을 차지했던 앗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헬라제국, 그리고 로마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들의 역사 기록과도 일치한다.

성경에 나오는 고대 지명과 인물들은 실존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이름이 바뀐 곳도 있고 중동 지방의 독특한 기후로 모래에 묻혀 있기도 해서 발굴하기가 쉽진 않지만, 상당수의 지명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고고학자들에 의해 많은 발굴이 이루어졌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다른 책이나 비문, 건축물 등에 의해서 실존인물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외에도 성경의 사실성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가 있지만 여기서 줄인다. 이것도 내 글의 성격 중 하나다. 맛만 보여주고, 독자에게 맡기는,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쉽게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오류가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건전한 믿음은 신뢰할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다. 오류가 있는 책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했다. 이 한 구절에 대해서도 다양한 생각이 존재한다. 사도 바울이 말한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을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쯤은 안다. 그리고 그 감동은 글자 그대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리라는 것도 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의 사례들로 성경의 사실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잘못 인용된 구절들로 성경의 사실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성경의 원본이 없음과 사본들의 불일치로 성경의 사실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또 어떤 사람은 외경들을 통해 성경의 사실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자료를 제시하더라도 나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자료들은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패러다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비과학적일까? 성경에 등장하는 초자연적 사건들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현대 물리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그들에게 물리학을 초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는 탐구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물리학으로 접근하면 오류로 보일 수밖에 없다. 성경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과학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잘 모른다. 그저 과학은 맞고 성경은 틀렸다는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자연주의적 과학자들은 현상을 '사건'으로 해석하지 않고 '물질과 시간'만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한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건이 아닌 물질과 시간으로 해석하다보니, 예수님이 기도를 오랫동안 간절히 하셔서 어떤 부자가 음식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헛소리를 해댄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이런 어처구니없는 해석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해석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을 자연주의적 과학으로 분석하면 오류로 보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과학 이전의 언어를 사용하여 과거의 사건을 놀랍도록 사실적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현대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물 위를 걸으신 일 등은 현대 물리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물리학을 초월하여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행하신 이, 자신이 만드신 물리학을 초월하실 수 있는 이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물리학으로 설명이 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삼차원 안에서 이해되는 존재라면, 우리의 삶을 그에게 담보시킨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삼차원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한 차원 높은 사차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더 자세히 구경할 수 있다. 창조론자는 과학적 분석 결과들을 통해 하나님의 정교한 창조에 놀라워하지만, 진화론자들은 동일한 결과들을 보고도 설계자이며 창조주를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창조주가 없이도 스스로 발생할 수 있다며 물질로 물질의 기원을 찾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 언론은 헉스입자가 자연상태에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신의 입자라고 호들갑을 떨지만, 헉스입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입자 중 하나에 불과하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데이터는 성경의 기록과 더 가까워질 것이다.

성경은 동시대 다른 기록들에 비해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대 근동의 신화는 대부분 선조를 영웅시하고 있지만, 성경은 선조들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성경이 그것까지도 계산하고 쓴 소설이라고 한다면 나도 더는 해줄 말이 없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을 설득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 손에 오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견뎌온 세계의 베스트셀러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창조](#)

요시야가 성전을 재건하다: 율법서를 발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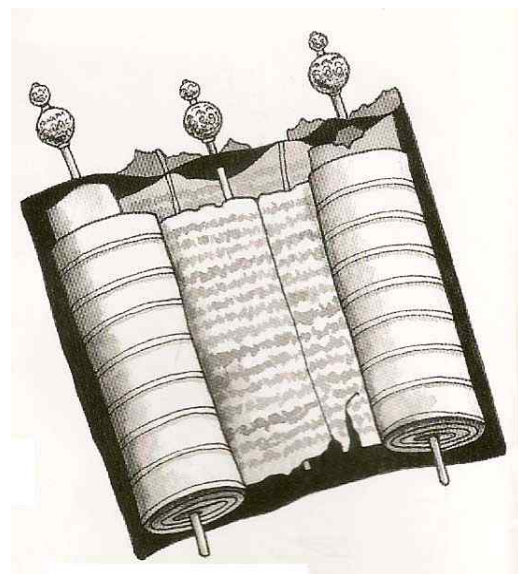
(열왕기하 22:1-23:30, 역대하 34-35)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같은 호화스런 생활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백성들로부터 불합리하게 세금을 쥐어짜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런 일에 대한 감정이 차올라 반역하여 10개의 지파가 모여 이스라엘이라는 북왕국을 일으킴으로써,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왕국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게 되었다. 이는 BC 931년에 일어났다. 그 후 209년 동안 두 왕국이 영적으로 쇠퇴했으며, 더불어 군사적으로도 약해졌다. 북왕국은 BC 722년에 멸망했으며, 남왕국 유다는 136년간 더 지속되었는데, 대부분 그 이유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선한 왕이 군사적인 힘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요시야는 BC 640년부터 608년까지 다스렸다. 요시야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는 성전을 보수하는 주요 운동을 이끌었다. 이를 진행하는 동안 인부들이 율법서의 사본을 발견했고, 요시야 왕이 그것을 백성들에게 읽어 주었다.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다. 그는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전 지역을 휩쓰는 개혁을 시행했으며, 우상을 파괴하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당시 앗시리아 제국은 쇠퇴하고 있었다. 요시야는 그 나라가 약해지는 것을 틈타, 국경을 확장했다. 그의 군사적인 승리에는 사마리아와 므깃도 주변의 영역을 되찾는 것도 포함되었다.



<율법서는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다. 두루마리의 기록은 긴 열로 되어 있었는데 두루마리의 오른쪽 끝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초기의 두루마리는 파피루스로 만들었다. 나중에, 아마도 출애굽 이후에는 동물 가죽으로 만들었다. 히브리인들은 이들 가죽을 “깨끗한” 동물로부터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요시야는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와의 전쟁에서 그에게 죽었다. 요시야가 죽은 이후 유다 왕국은 급격히 쇠퇴하여 곧이어 강한 나라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였다.

율법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진을 쳤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키면서 살아야 할 중요한 많은 율법을 주셨다. 이들 율법은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태도에 대한 안내서였다.

모세는 이들 율법을 책에 썼고,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되새기도록 자주 읽어주었다. 십계명은 이 율법서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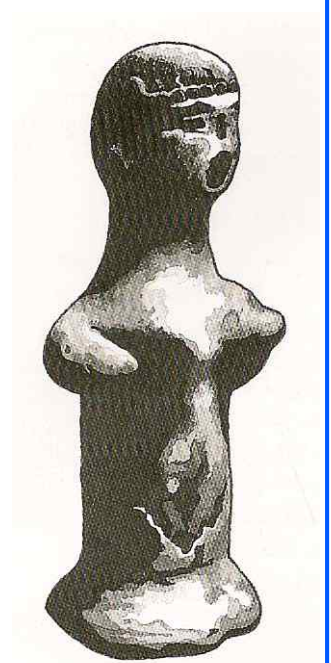
어디서 발견되었나?

율법서는 아마도 먼지 나는 선반이나 성전의 잊어버린 구석에서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고대에는 중요한 문서를 새로운 건물의 초석에 놓아두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요시야의 시절에 그의 작업자가 성전의 대대적인 보수를 하고 있었다. 3세기 반 전에 솔로몬이 놓았던 오래된 초석은 아마 균열이 가거나 부서졌을 것이다. 그래서 작업자들이 그것을 보수하거나 고치려고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이 중요한 책을 발견했다.

율법서의 낭독

율법서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이었다. 그것은 모세가 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음 읽어주었다(출 24:7).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주시는 복을 상기시키기 위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 책을 다시 읽어주었다(수 8:32-35).

두루마리 - 고대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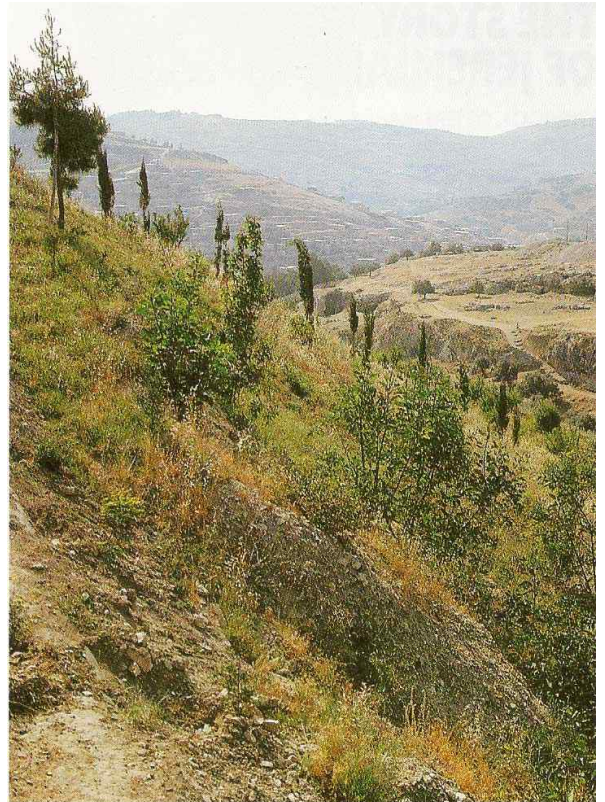
<이스라엘 열왕기 시대의 아스타르테 작은 상. 아스타르테는 중동에서 풍요의 여신인 아스타롯 혹은 아스토렛으로도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고대의 책을 두루마리라고 불렀다. 그것들은 오늘날의 책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 사실상 책을 페이지별로 제본한 것은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였으며, AD 10세기 이전에는 종이가 발명되지 않았다.

여호수아의 시기에는 대부분 나일강을 따라 자라는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 박판에 기록했다. 이집트 사람들은 파피루스를 2,000년 넘게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토판을 대신하여 그것을 사용한 것은 방금 시작되었다.

파피루스 박판은 파피루스 줄기를 서로 엮어서 만들었는데 흡사 베틀에서 천을 짜는 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나서 길고 가느다란 조각들을 두드려서 납작하게 한 다음에 햇빛에서 말린다. 상아나 조개껍질 조각으로 한쪽 면을 문질러서 부드럽게 한다. 완성된 파피루스 박판은 종이와 유사하게 보인다.

그리고는 이 박판들을 꺾매거나 풀로 붙여서 긴 뭉치로 만든 것이 두루마리이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어떤 두루마리는 펼치면 길이가 100피트 이상이나 된다! 두루마리의 양쪽 끝에 핸들을 고정하여 그것을 쉽게 펼칠 수 있도록 했다.



<힌놈의 골짜기에는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으며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것들을 부숴다.>

서기관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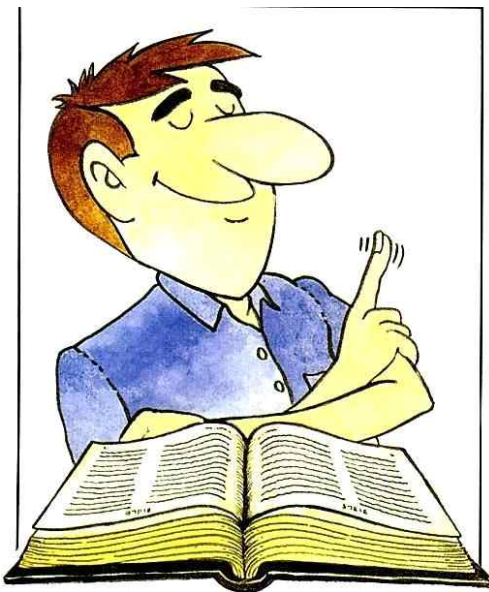
성경시대에는 선택된 일부의 사람만이 읽고 쓰는 기술을 배웠다. 서기관이란 고대의 기록자들을 말하며, 이스라엘 사람이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15 내지 2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

서기관들은 할 일이 많았다. 왕국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종종 읽고 쓸 줄 모르는 왕을 대신해 편지를 썼다. 또한 성문 곁에 앉아서 사람들을 위해 상거래를 기록하기도 했다.

율법서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은 유대 나라 전체를 통틀어 유일한 “성경”이었다. 극히 작은 부수의 추가 사본을 서기관이 기록하는 데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며, 그렇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거나 쓸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성전이나 공공 광장에서 서기관들이 율법서를 크게 읽어주었다. **참조**

내겐 성경이 있어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최근의 대규모 창조과학 세미나에서, 그날 아침에 있었던 자기 남편과의 대화 때문에 괴로워하던 한 여자가 강의를 통해 자극을 받았다.

그녀는 매우 중요할 것 같은 이 세미나에 자기 남편을 권유하여 참석시키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남편은 ‘내겐 성경이 있어.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성경만 있으면 이런 창조의 증거들이 필요 없어. 왜 내가 진화가 틀린다는 것 따위를 알아야 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야’ 하면서 거절했다.

‘나는 오늘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세미나는 내 신앙에 참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 남편 빌의 반대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녀가 말했다.

나는 잠시 생각한 후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과 빌 사이에 자녀가 있습니까?’

‘물론 있지요. 여덟살부터 열세살 사이에 세명의 아이가 있는걸요’ 라고 대답했다.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 남편이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해줄 것입니다’:

『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사실,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이신 분으로부터 온 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관점으로는 당신이 아주 옳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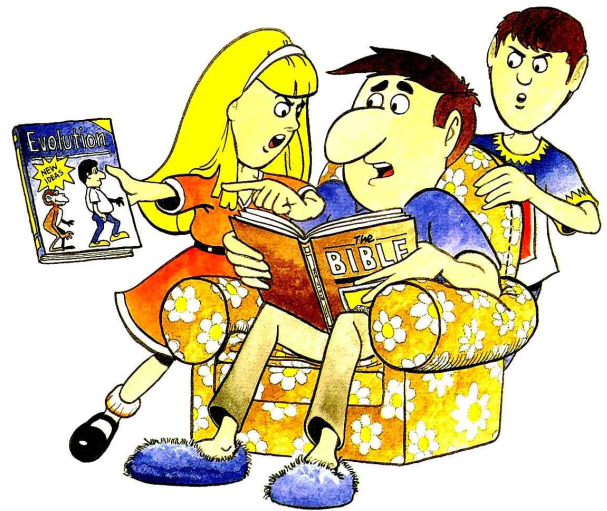
그러나, 당신도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성경에 관한 믿음에 대하여 당신과 당신 자녀들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사실, 매스컴과 교육기관을 통하여 아이들과 어른들은 진화론적 사상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모든 생명은 우연한 임의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을 그들은 듣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 관한 그러한 공격을 우리 자녀들이 듣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로부터, 이웃에서는 친구들로부터, TV 프로그램, 지방 신문, 어디서건 집어들 수 있는 잡지, 박물관, 대학 또는 슬프게도 몇몇 교회에서까지 그런 것을 듣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진화론으로부터 격리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그러한 가르침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빌, 당신의 자녀(어리든 성장했든 간에)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빠, 나는 공룡이 수백만년 전에 살았다고 들었는데, 성경하고는 맞지 않아요. 이것이 옳은가요?”

“아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사람이 어떤 원숭이 같은 생물로부터 진화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해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래요. 이것에 대해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는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어. 그것은 종교 서적일 뿐이고 진짜 과학은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거든’ 하고 말해요. 사람을 달에 보냈고 컴퓨터와 같은 놀라운 발명을 해낸 과학자들을 내가 왜 믿으면 안돼요?”

“아빠, 화석은 어디에서 왔어요? 그것은 성경하고 일치해요? 창세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왜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믿어야 하나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를 인용한 것까지 말이예요. 성경의 창세기에서 말한 세계적인 홍수는 없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내가 가 본 박물관에서는 모든 과학적 증거가 진화를 증명한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왜 내가 성경을 믿는 아빠의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빌, 성경이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인 반면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도 역시 말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벧전 3:15).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살전 5:21).

다시 말해서, 빌, 기독교는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 객관적인 신앙입니다. 즉, 사실에 입각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은 진화론자들의 맹목적이고 주관적인 믿음과 같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과거에 관련된 어떤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서 우리의 신앙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논리적으로 방어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노력할 때, 그 때 우리는 이 일에 맞서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 10:4-5).

예를 들어, 성경에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시대에 일어난 사건으로 온 세상이 물로 덮였다고 선언한다면, 과거에 전세계적으로 격변하는 대홍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것이 지구 표면에 증거들을 남겼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수백만의 동식물이 묻힌 층이 전 지구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견하는 그대로입니다.

물론, 빌, 진화론자들은 이런 층들과 죽은 것들(화석)이 진화에 대한 위대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홍수에 관한 설명을 조롱하기 위해 책을 쓰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기독교인들을 격렬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과학적 연구에서는 이 증거들이 수백만년 동안 일어난 점진적인 진화 과정이 아니라 격변적이고 빠른 과정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성경이 (비록 과학적 관점에서 증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아 시대의 홍수에 관해 말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따라서, 성경으로부터 출발하되 성경의 밖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방어할 논리를 제시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성경이 계시된 진리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빌, 자녀를 훈련시키라는 훈계(잠 22:6)와 자녀들이 쉽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엡 4:14) 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아이들이 창조/진화에 관해 물어올 때 그 대답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사악한 것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곳에는 이것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이런 답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미 해 주었어야 합니다.

슬프게도 많은 아이들이 기독교를 배반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부모들이 율법적으로 기독교를 강요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은 진화론자들이 왜 진화론을 믿어야 하는가의 “이유들”을 들었고, 따라서 성경은 결코 진리가 아니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위의 질문들과 같이, 빌의 자녀들이 그에게 한 가상의 질문들은 창조론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가 항상 받는 전형적인 질문입니다. 요점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이해하기 쉬운 대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 : 행동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그 진리에 입각한 행동을 취할 것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명령합니다.

창세기 1:28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문화명령’은 말 그대로 땅을 연구하고 거기서 얻은 지식을 땅에 사는 인간과 동물들에게 유익하도록 사용하는 인간의 활동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공학, 농학, 의학 등과 같은 분야에서 기술을 선도했습니다.

역사 속에는 학교, 병원 등을 세우고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기독교인이 가득합니다. 그들 사고의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모험을 감행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게는 성경이 있어. 그것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야.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

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그런 태도를 취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야고보서 2:20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 믿음에 따라 행하고 실질적으로 성취해 나가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 중의 하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맹목적 믿음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책임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많은 아이들이 기독교를 등지게 되는 주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거나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보다 더 큰 거짓은 없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소위 ‘과학’으로 가장하여 세상을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에 대응하여 대단히 훌륭한 과학적인 반대를 할 필요가 (그리고 이미) 있습니다. 진화론적 사고를 좌절시키고 우리의 기원에 관하여 말해주는 성경을 지지하는 데 유용한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에 관하여 그들의 머리를 모래 속에 묻어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아이들이 진짜 맹목적 신앙, 진화론 신앙 및 그에 따른 필연적 결과인 인본주의(‘인간이 규칙을 정한다’)와 같은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창조론 사역은 오늘날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역입니다. 세미나, 책, 비디오는 매우 귀중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여 모든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게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빌, 당신이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다음 창조과학 세미나를 놓치지 않을 만큼 현명해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많은 유용한 창조과학 서적을 읽거나, 중요한 비디오를 보고, 환상적인 가정용 창조과학 잡지(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를 구독하면, 당신의 자녀나 친구들 및 이웃들에게 진실하고 논리적이며 불굴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해할 뿐 아니라 실질적이고 진실한 의미를 부여하고, 창조주와 함께 하는 영원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는 신앙 -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출처 : Creation ex nihilo Vol. 15, No. 2 **창조**

창조과학 스터디모임(5)

일시: 2017년 2월 9일(목) 19:00 ~ 21:20

장소: 경북대학교 생물관 213호, 참석자 13명

학습내용

교재: 창조과학, 자주하는 질문 모음집 (한국창조과학회)

학습 범위: 3장 3-1 인류의 기원(85-86쪽) 및 인류 기원 관련 학습 보조 자료

3-1-1. 교과서에 나오는 유인원 화석들은 진화를 증거 합니까?

토론내용

<스터디 공부 중에 나눈 토론 주제 요약>

- 인류기원 관련 자료를 사용하여 공부하고 토론하였음 -

생물학의 ‘종’ & 성경의 ‘종류’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연구결과

네안데르탈인과 후성유전학

네안데르탈인도 우리처럼 언어를 사용함

네안데르탈인은 완전한 인간

크로마뇽인은 유럽인

흑인, 백인, 황인종의 피부색과 유전자

베이징원인 최근 발굴 보고

DNA 연구를 통한 인류의 기원

스터디 모습



창조과학 스터디모임(6)

일시: 2017년 2월 23일(목) 19:00 ~ 21:10

장소: 경북대학교 생물관 213호, 참석자 6명

학습내용

교재: 창조과학, 자주하는 질문 모음집 (한국창조과학회)

학습 범위: 3-1 인류의 기원, 3-2 고대 인물과 성경, 3-3 민족의 기원, 3-4 언어 및 문자, 3-5 노아의 홍수 (86~105쪽)

3-1. 인류의 기원

3-1-2.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습니까?

3-1-3. 히틀러가 주장한 ‘아리안족의 우수형질’이 성경에 보면 타당한 이론입니까?

3-1-4. 석기시대 인류는 정말로 원시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3-1-5. 가인이 두려워한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3-2. 고대 인물과 성경

3-2-1. 아시아의 생성시기는 창세기 연대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3-2-2. 단군은 성경 상으로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3-2-4. 바벨탑 사건은 홍수 후 불과 100여년 후인데, 건설하는 데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3-2-5. 벨렉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2-6. 어떻게 아담은 단 하루 만에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을까?

3-2-8. 여호수아의 긴 하루는 정말 있었나요?

3-3. 민족의 기원

3-3-1. 노아홍수 이후로부터 인구가 증가해 왔다면 지금의 인구가 될 수 있을까?

3-4. 언어 및 문자

3-4-1. 중국 문자인 한자에 창세기의 비밀이 들어있다는데 어떠합니까?

3-5. 노아의 홍수

3-5-1. 대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대부분 900살 이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습니까?

3-5-2. 노아의 8식구로부터 오늘날 인류가 모두 나왔습니까?

토론내용

<스터디 공부 중에 나눈 토론 내용 요약>

선사시대 사람은 미개한 사람이었나?

바벨탑 건축 기술

여호수아의 긴 하루 관련 토의

기타토의

□ 스터디 모임 관련 토의

- 다음 스터디: 2017년 3월 9일(목) 19:00
- 2017년 3월 스터디: 3월 9일(목) & 23일(목) 19:00
- 현재 교재 후 다음 교재는 다음 달에 정하기로 하고, 대구지부 재원으로 교재를 구입하여 배포하여 스터디에 교재로 사용함
- 3월 중 두 번의 스터디 모임에 권진혁 교수님께서 참석하셔서 교재의 우주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주관련 질문사항 등을 설명해주실 계획임

다음 모임

2017년 3월 9일(목) 19:00

그 다음 모임 2017년 3월 23일(목) 19:00 [창조](#)

스터디 모습



지 부 소 식

2017년 2월 13일~3월 13일(5주)

창조과학 기본과정 (경주) 매주 월요일 저녁7시-9시 반 (장소: 경주 온누리 교회)

2017년 3월 06일~4월 03일(5주)

창조과학 기본과정 (포항) 매주 월요일 저녁7시-9시 반 (장소: 포항 빛과 소금 교회)

2017년 3월 09(목)

창조과학 스터디모임 (7) (장소: 경북대학교)

2017년 3월 16(목)

3월 정기모임

2017년 3월 23(목)

창조과학 스터디모임 (8) (장소: 경북대학교)

** 편집인의 변 ***

새봄의 기쁜 소식들을 알려주는 봄꽃들이 반갑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올해도 변함없이 봄을 물고 오신 하나님의 숨씨에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봄학기 새소식반을 개강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GOOD NEWS입니다. 새봄에 일어나는 봄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일어나 전진하는 메신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의 모든 걸음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현옥)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creation21.or.kr@gmail.com)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